

루마니아 이야기 2

kopower



소개글

루마니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목차

1	아이치 루마니아 28(루마니아 음식)	4
2	아이치 루마니아28(루마니아음식2)	10
3	루마니아에 이렇게 멋진곳이 !	18
4	아이치 루마니아 29	26
5	AICI 루마니아 30	39
6	AICI 루마니아 31	51
7	아이치 루마니아 32	65
8	아이치 루마니아 33	80
9	아이치 루마니아 34	99
10	아이치 루마니아 35	124
11	아이치 루마니아 36	146
12	아이치 루마니아 37	171
13	루마니아 이야기 38	193
14	루마니아 이야기 39	213

다음 블로그 사진 올리기 정말 힘드네요.진작에 몇번을 시도하다가 못올리고
오늘 루마니아 전통 음식들 절반 올립니다,다음에 후편 올리겠습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음식은 닭 간에 감자 으갠 것 입니다.닭간을 기름에 튀긴것,물에 삶아 양념한것과 숯불에 구운것이 있음.



볶은 밥 ? 주 재료인 버섯과 야채를넣고 밥을 볶은 음식인데,메인 요리와 함께 나오는 경향이 많음.



닭 날개 튀김 요리에 감자튀김,



"까스까발 파네"라고 치즈를 밀가루로 덮어 튀긴 요리인데 모양이나 맛이 우리나라 인절미하고 너무 흡사.



닭다리 숯불구이에 ,미치 2개,미치라는 음식은 잡고기를 칼로 잘게 다져서 손으로 쏘세지처럼 만들어 숯불에 구운 음식,미치는 루마니아 대표 음식중 하나인데 나는 비 위생적이라 별로 안좋아 합니다,



도로 주변 휴게소같은 지역에서 음식을파는 모습,주로 미치와 쏘세지 그리고 닭다리 숯불구이....



우리현장 숙소의 식단입니다,고사리가 엄청 많기에 뜯어다가 물에 삶아 된장,고추장,참기름 마늘등 넣고 내가 무쳤습니다,어디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거 같아서요,근데 고사리를 너무 삶아서 죽처럼 되었습니다.ㅋㅋ



"쿨라쉬" 라는 헝가리 전통 음식인데 ,루마니아도 이렇게 정통으로 하는집이 있습니다.
큰 빵을 내용물을 다 파내고 그 안에 큰 콩과 수제비 고기를 넣고 양념을 해서 익힌것입니다.



닭 간요리인데 치즈 가루를 뿌려 맛을 다르게 했네요",머멀리거" 라는 옥수수 찐 것과 조화를 이루었네요.
"머멀리거"도 루마니아 대표 전통 음식중 한가지인데 옥수수 가루를 찐것입니다,이 나라 사람들은 생선을
먹을때 가시가 목에 걸리지 마라고 꼭 곁들여 먹습니다.



"추빠르치 데 무라치"버섯 절인 것 :느타리 버섯을 식초와간을한후 오이 피클 만들듯이 삭힌 ,절인식품으로
샐러드 먹듯이,메인 요리인 고기와 곁들여 먹는 음식인데 맛있습니다.



"아르데이 데 콥츠"(피망 절인 식품): 피망같은 종류인데 역시 식초에 간을해서 절인식품,맛있습니다.



닭간을 양파등과 함께한 소스를 넣고 익힌 식품으로 맛있습니다.



생선을 좋아하는데 바다,민물 생선을 따로 가리지 않습니다,거의 생선은 굽거나,기름에 튀겨서 위와같이 한마리씩 메인 요리로 나옵니다.



소고기 익힌것에 브드러운 야쿠르트 쏘스를 곁들인 요리",파베르나 스르부"라는 식당 음식으로 수도에서 거의 제일 잘하는 음식점입니다.



"송어회" 바다가 멀고 회는 먹고싶고....., 민물생선이지만 송어회라도 먹을수 있다는게 다행입니다.
제가 뜯 송어회인데 회뜨는 실력이 이제 거의 달인 수준에 달한거같지 않습니까 ?



"끄르나추" 라고 우리나라 순대와 같은 음식인데 이나라 사람들도 명절에 많이들 해놓고 먹는 음식으로

기름에 튀겨서 감자 튀김과 함께 먹습니다.



역시 닭간 요리입니다,제가 원낙 닭간 요리를 좋아하다보니 닭간 요리에 감자 으깬것을 곁들여 노았네..



"머멀리거" 옥수수 가루를 찐 음식인데 생선 먹을때 거의 곁들여 먹습니다.



"초르바 데 비터" 소고기 스프입니다.



양고기 음식인데 이나라도 양고기 꽤 좋아하고 많이들 먹습니다,나는 양 냄새가 싫어 안좋아 합니다.

위와같이 쏘스에 곁들이면 그나마 냄새가 덜하는데 그래도 왠지...



역시 닭간 요리 입니다,파인애플이 곁들여진 쏘스로 새로운 맛과 향이 납니다.







로로 공사로 가던길이 막혀서 길도 없다는데 산길로 접어들어 일단 산을 넘어가려고 돌아돌아 방향을 잡았는데 도로가 근래에 생겼단다...



우~와 ,해발 약 1600 고지에 이런 멋진 곳이 있었다니 ! 이곳은 T.G mures ~ Petrosani 가는 우측편에있는 스키장이 있는 관광지란다,근래에 새로 길도 닦아서 많은 서유럽 관광객이 몰려온다고합니다.

영결결에 지나왔는데 정말 멋져서 돌아서서 사진한장 찍었습니다.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까웠다 !!!



"무식하면 용감하다"란 말이 생각납니다, 길이 나있다니 참 다행이었다,이길 아니면 약 300 km 를 돌아가야 했는데 난 그냥 산 골자기로라도 넘어가려고 들어섰는데 근래에 길이 났네요 ...



우~와 ,혼자 보기엔 ...



저 분지안에 내가 원하는 광물도 있을것같은 느낌 !



루마니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있는 도로라는군요,해발 2400 정도 된다네요,공기가 추웠습니다.



여기 부터는 내려가는군...



하늘가는 길 !



정말 가슴이 펴 돌리는데 아! 여기가 루마니아구나 싶네요.



중간쯤 내려오니 왠 방목 당나귀들이... 차도 겁네지않고 ,사람도 가까이





아이치 루마니아 28 편에 올렸던 곳으로 한국에서 온 손님과 다시 넘어갔다,한치 앞도 안보이게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 당나귀들 있던 지점에 도착하니 이놈들이 길을 막고 먹을걸 내놓고 가라네요...



조금더 내려오니 작은 산장에서 구운 양고기에 시장기를 달래고 주인 남매와 기념 사진도....
멀리 꼬래아에서 왔다고 음식값도 안받으려고 하는데 인심이 옛 우리네 시골과 같습니다.



"데바"라는 도시 근교에있는 멋진 옛 성처럼 꾸민 레스토랑에 마음먹고 자리잡아 음식을 시켰습니다.

위 음식 이름은" 체아퍼 데 뽀르크"(돼지 목살 구운것에 감자 으갠요리)구운 돼지고기위에 베이컨을 두세점 올리고 으갠 감자도 모양을내고 위에 색채감으로 시금치 삶아서 으갠 소스를 참 모양을 내느라 ...
 먹음직스럽죠 ? 아마 제가 루마니아에 살면서 먹은 음식들 중에 가장 맛 없는 음식,아니 이집이 정말로 음식을 못하는 것이겠죠,가격은 우라지게 비싸더군요 .세사람 다들 반도 못먹고 투덜투덜 나왔습니다.



먹기전에 우리들은 감탄 했습니다.

우 ~와 이렇게 멋지게음 역시 비싼 집이라 모양부터 다르네 ! 어디서 부터 어떻게 먹어야하나 ??



제가시킨 "뿌러지트 데 빠스트라브"(송어 숯불구이) 접시도 엄청크고 이야 ! 이 집 음식에 신경좀 쓰는구만 !
그러나 우린 세 사람이 시킨 각각 요리들 절반도 못먹고 나왔다,보기와 맛이 이리도 다를수가 있단 말인가 ?
"보기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 그러나 맛은 없다 !가 정답이네요.



연어 구이 ,ㅋㅋㅋ이런 맛을 내기도 힘들텐데 ,최고의 일류 요리사라고 외이터는 주절주절 거린다.
나오면서 우린 너무 돈이 아깝다는것을 야기하며 가다가 다른 점빵에서 빵이라도 하나씩 사먹자고했다...



헝가리 가다가 루마니아 아라드 근방 길거리에서 라면 끓여 먹는데, 야 ! 역시 라면이 최고야 !



오랜 만에 구경을 왔습니다,일 관제로 지나갈때와 이렇게 구경오니 새삼 보여지는 풍광이 다르네요.
사진만 보셔도 거의 아시죠 ? 헝가리 부다와 페스트를 잇는 다뉴브 강, "부다페스트" 입니다.





목동이 입는 양털 옷을 입어봤는데 영 어울리지 않네요.



저희 현장 지역에서 가깝기에 얼마전 안개 때문에 잘 못봤다기에 다시 찾았습니다.



저희 숙소 정원에 열린 포도가 거의 익어가고 있습니다.



포도 두송이 따서 먹으며 가을을 맞이하는 중입니다.



루마니아에는 버스 노선이 거의 없고 "막시택시"라는 15인승 승합차가 도시와도시를 오가는 정도가 전부였는데, 요 근래부터 대형 버스가 장거리 도시간 여객 수단으로 등장을 했습니다.우리나라 옛 시외버스 수준.



에어컨도 있고 제법 외관은 그렇듯 합니다. 고속 도로가 얼마 없다보니 약 400 km 를 9시간 걸린다네요.
저도 오늘은 이 버스를 타고 수도인 부카레스트로 출발합니다.요금은 약 20,000 원정도



총 5개 경유지를 거쳐 간다는군요, 거의 하루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 옆자리에앉은 손님 , 이름이 "알렉 산드루" 라네요, 7살 반에 일학년 재학중,아빠는 이탈리아에
돈벌로 갔고 엄마랑 외가집 갔다 집에 가는 길이라네요.



조금 친해지니 장난도 치고 얼굴이 빨아 졌습니다.음~ 오늘은 요놈하고 놀아야겠군....





현장 숙소의 정원에 포도가 다 익었네요,따서 포도주를 담가야 하는데 시간이없어 다 떨어지고 있네요,옛그제 익어가는 것들만 골라 따먹었는데 세월 참 빠르네요.



거의 꿀맛입니다.



드디어 오늘 좋은 것들만 따서 포도주를 담기로 했습니다,교회 일년 성찬용으로 담아야 하기에 설탕을 30% 넣고 담기로 했습니다.



약 50 킬로그램의 포도주를 담그는데 마쳤습니다,포도주 드시고 싶으신분 루마니아로 오십시오...



루마니아 국회 상원 의원인 Corneliu 의원 집무실에 방문하여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비서를 시켜 국회 집무시로 쓰고있는 "인민 궁전"을 구경시켜 주네요,난 우리나라 손님들 모시고 여러번 와본 곳인데...



루마니아 "인민 궁전" 입니다,세계에서 단일 건물로 미국 펜타곤 다음으로 큰 건물로 방이 약 1200 개가 있으며 동서남북 외관이 같은 특징과 등등...



일부를 국회 상,하의원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이 형상은 인민궁전 내부도입니다.



루마니아 최고의 아름답고 가치있다는 아테네 홀에서 열린 콘서트를 보러 왔습니다.



아무리봐도 얼굴 면적은 외국인의 두배 !



우리 부부도 사진한장 남겨둘려고 .



저 바이올린 리스트는 우리나라 분이니다,참 잘하더군요.



공연이 끝나고 한국 음식으로 차려진 만찬 ! 사실 이맛에 저는 읍니다...





이곳 루마니아 아멘 교회를 근 5년간 섬기신 차 권사님이 한국으로 귀임하시기에 파송 찬양을 함께 부르며..



해외 교회 이다보니 많은 분들이 가고 오고 하는데 이젠 숙달이 될법도한데 여전히 함께 예배보던 분들이 떠나게되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눈가엔 어느덧 눈시울이 젖어든다, 축복으로 그의 가는길을 빈다.



하체그 현장에 겨울이 오고있다,겨울이 몇개월이 갈지 모르나 일단 메인 장비만 철수하기로 했다.
경비원 3 명의 급료도 만만치 않고, 원낙 도둑놈들이 많아 이대로 두고 겨울을나면 봄에 장비가 그대로있을
만무하다,옛 우리말에 "서울가면 눈뜨고 코베간다" ㅎㅎㅎ, 여긴 요즘도 눈뜨고 목 베간다.

리



일단 메인 장비인 선별기만 철수해야겠다.



올해도 루마니아 메인 엑스포에 사람들은 많이들 오는데 실물 경기가 어렵다보니 예전같지 않다.



우리 형님네 하우스 판매 모델이다, 그나마 농업쪽은 불황이 조금 덜하는것 같네요.



올해 새로 한국에서 들어온 씨앗 모종 발아용 난방 시스템에 관심이 많군요.

전열 배선을 땅에 깔아 지열을 높여주는 전기식 온열 장치인데,우리 한국에 이와같은 제품들이 많이 나온것

으로

아는데 해외 시장을 공략 해볼만하다.



인천 만석교회 원종희 목사님이 루마니아 우리 교회에 오셔서 3일간의 부흥회를 갖었다,은혜롭게 잘 마치고

전교인이 찰각 !



우리 교회에서 후원 하고있는 알렉산드리아에있는 은혜교회에 원목사님 모시고 다녀왔다.



부흥회와 루마니아 일정 다 마치고 원 목사님 모시고 불가리아 중세도시인 벨리꼬파르노브 에 갔다, 루마니아 수도에서 약 200 킬로정도로 3시간 남짓이면 오는 거리고 정말 멋진 곳이다.





불가리아 전통 식당에서 메뉴판을 많은 검토 끝에 주문한 이름도 기억 하기힘든 음식인데 돼지고기에 각종 야채를 넣고 치즈로 덮어 끓인다음.... 음 조금 느끼하지만 그런대로 먹을만했다.



식당 전경입니다,차베르츠 언덕위에있는 전통마을 안에있는 식당.



루마니아 관광도 시켜드렸습니다,역시 시나이야로 올라 가는중에 석유를 뽑아내는 저 기계설비가
신기하다고 하시며 구경했습니다,



루마니아 솥 굽는 모습. 우리나라와는 다르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나라 솥 가마같은것도 있더군요,



가마에서 숯을 꺼내면 저 통안에 넣고 모래로 덮어 불씨를 꺼야한다는군요.



군요, 흙속에 묻혀있는 나무가 잘 타도록 공기를 통하게 타네려가는 정도를보고 저렇게 구멍을 뚫어 주워야한다는



저렇게 숯만들 목재를 노천에 상고 그위에 톱밥과 모래를 덮고 불을 지피면 숯이 된대네요.
요즘 루마니아 숯 시장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선 백탄이니 비장탄이니 숯 시장이 크고 거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등지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루마니아도 참나무가 엄청많고 조건이 맞을것 같습니다.
어떤분이 도와 달라기에 시장 파악하고 업자들 만나보고 큰 업체들과 미팅 약속을 다 해놓고나니....
그러나 덕분에 루마니아 숯 업계 에대해서 배우고 알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 해야지요.

루마니아의 2013년 겨울이 가고 있습니다.

꽃샘 추위인지 쌀쌀한게 오늘은 가랑비까지... 아마 이비가 그치고나면 완전한 봄이 올까 싶습니다.

지난 겨울을 돌아보며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아멘 한인교회 겨울 수련회 모습들 몇장 담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하던 분들 많이 그리우시죠 ?

올해도 송어회와 송어구이로 수련회를 만끽했습니다,평년에비해 인원이 작았네요...





저 세분이 올해 송어회를아 ~~ 와인도 있군요 !



점점 늘어가고있군 !





드라쿨라성을 조금지나 모에츄에 라는 지역인데 참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펜션, 하루 숙박료는 더블룸이 약 25 유로 아침도없고요,새집들이라 깨끗합니다.
이 지역에 이런 숙박업소가 대략 몇백곳은 될것입니다.



우리가 묵었던 펜션입니다,저 건물 통째로 얻어서 예배도 보고 맛있는 회도 먹고 루마니아의 삶을 나누며...





올해 수련회 인원이 가장 작았던것 같네요, 안보이는 분이 몇분 계시네...



여선교회. 2013 년 한해 매주 예배후 맛있는 음식 잘 먹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송어 숯불 구이 !



엄청 맛있게들 많이 드시데요, 약 40 kg 을 회를 떼는데 다 드시데 ㅎㅎㅎ



남선교회 ! 여러 사정으로 5 셋 가정정도가 빠진것 같습니다.



작년보단 덜 왔는데 그래도 올해도 역시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저렇게 많이 왔는데 어딜 쏘다닐려고 집사람이 자기차 눈 치워 달라고 난리네요, 할수없이 치우는데
아~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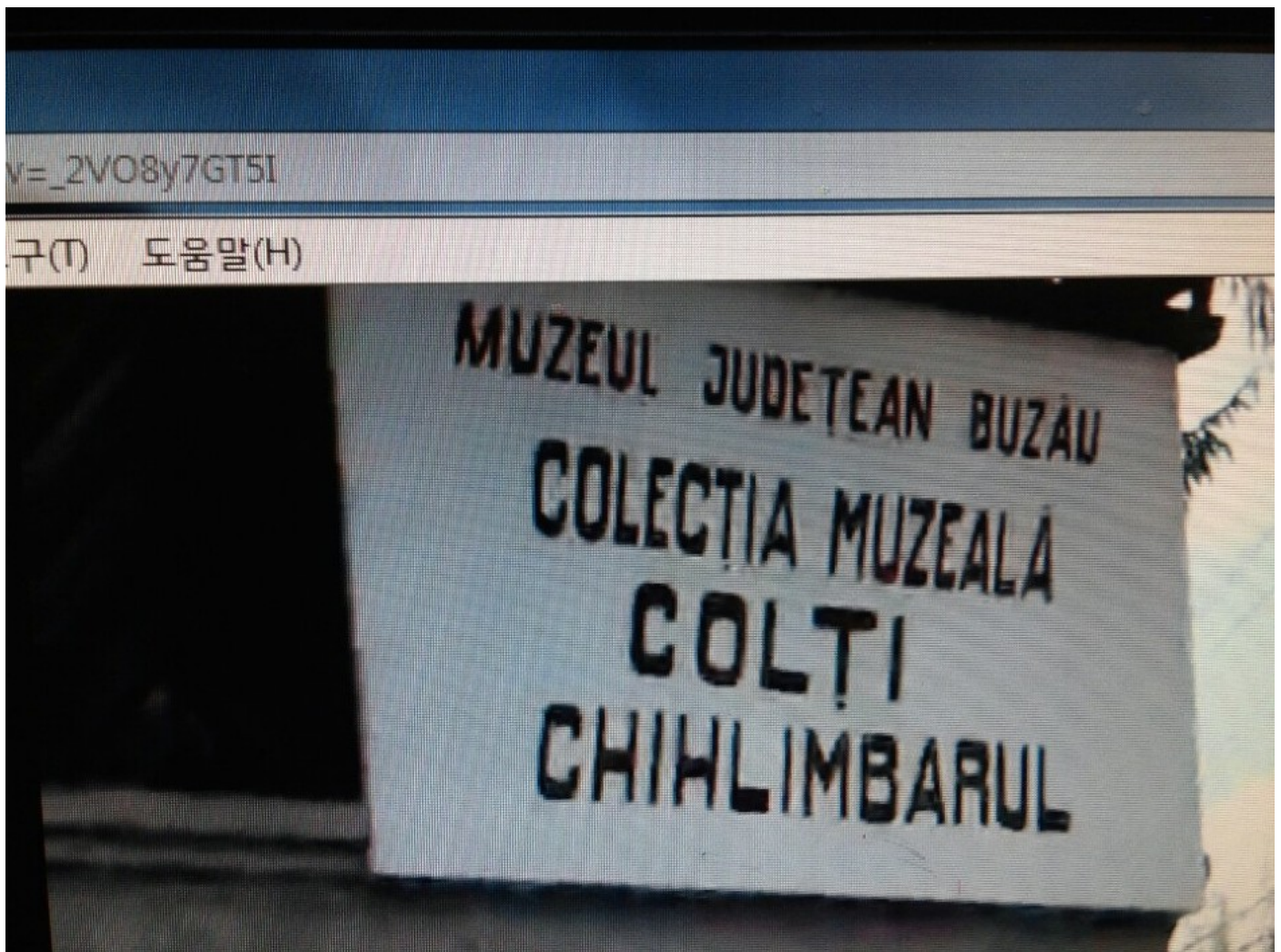
다들 나와 눈치우네.... 이곳 루마니아 사람들 자동차 문화도 우리보다 앞섰지만 차 관리도 아주 깨끗이 잘 합니다.



루마니아 유일의 "호박 박물관" 이 있습니다,루마니아에 있는 광물을 다 알아보려니 호박도 알아봐야 할것 같아서....

옛 공산당 시절에는 호박광산이 활발히 운영되었는데 지금은 채산성 문제로 채광이 중단되었고 유일하게 박물관은 있으나

오는 사람도 별로없고 명백만 유지하고 있었다.





이 작은 시청에서 박물관을 운영 한다가에 시 담당자를 만나 옛 화려했던 시절 호박 이야기도듣고 기념으로 인증샷 한컷 !



박물관지기가 어디 갔다네... 키가없어 못들어가고 시담당자가 소장하고잇는 몇점 늘어놓고 구경하는중.





공산당 시절 호박을 채취했던 곳인데 지금은 방치되어 있는데,내가 생각해도 채산성이 없다,리투아니아 같은 나라는 그냥 막 줍는다는데....
이번에 루마니아 호박 보석의 유래와 현 상황 매장 분포도등 다양한 호박광물에대해 익히게 되었다.



계곡에 얼음은 다 녹았지만 아직도 겨울이다,루마니아의 마노광물을 찾아 길을 나섰다,자 이제부터는 루마니아의 마노광물을 약 한달정도 탐사할 것이다, 출발 !



이 마을을 지나 저 산을 넘으면" 알마슈마래"라는 루마니아의 마노가 나오는 지역이 나온다.

EU 국가에 편입이 되면서 마을마다 저런 모델의 마을 표지판이 설치됐다,위는 마을이름 밑부분은 "후네도아라" 라는 "주"이름입니다.



계곡의 돌들을보니 금이 충분히 있을만한 조건의 광물들이 있네요,그렇지만 오늘은 금이 아닌 마노광물을 찾으러 왔으니 금 패닝은 다음에...



철성분때문에 물 색깔이 불그스레하네요,사철이 이정도 있다면 금의 매장이 굉장히 많은데 두고봅시다...





우물 두레박이 참 특이하네요, 긴 장대 막대기에 바가지를 달아....



두 계곡에서 흐르는 하천이 만나는 지역이다,
아무리 바빠도 이곳은 두세 바가지 패닝을 해봐야한다.
역시 이곳은 내 생각대로다 금이 엄청 있다,봄이되면 다시 탐사해야겠다....



저 이정표 없으면 이 산골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가나...





숙소에 왔다. 광물의 전문가가 왔다고 각종 광물을 가지고와서 봐달란다,이나라 사람들 내가 광물학계의 전문가 인줄로 알고 자문을 구한다
ㅎㅎㅎ



데바라는 도시 근교의 골재 채취장이다,혹 이근방에 마노광물이 있나 확인하러왔다.



ㅎㅎㅎ 산적같다. 루마니아 광물 업계에서 꽤 뛰어난 인물이다.



자라는 돌이라고 우리나라 티비에서 방영도 했는데 이 지역에도 이돌들이 있네, 이 돌의 이름은 "트로반트"라는 돌로 이곳에서 약 300 km 떨어진곳에 잇고
그곳이 우리나라 방송에 나온 곳인데 여기도 잇네...



한국돈 약 3000 원어치 제일 싼 점심이다.할인마트 입구에 입시 포장마차에서 파는데 이렇게 싼 음식도 있다 ,지방이라...



로모산 이란 저 친구와 시간이 없고 배는 고프고 간단히 먹자, 그래도 오늘 점심은 안끓고 먹는다.



저 멀리 보이는 산으로 "마노" 라는 광물을 찾아 지금부터 출발 !



공산당 시절만 해도 이 마을에 50 가구에 약 300 명 정도의 주민이 살았는데 지금은 6 가구 15 명정도 그것도 거의 노인들만 있대네요.
저 집도 폐허가 되었는데 몇 백년된 집값네요.



세월의 유구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ION 이라는 63살 먹은 저 양반을 길잡이로 소개를 해주고있는 Achim Emil 박물관 주인.
이 집에서 3일간 묵기로했다,그리고 이 일대 계곡을 다 뒤지며 홍마노를 찾을 계획이다.



ACHIM EMIL 광업 박물관 전경. 개인 박물관인데 이일대에서서는 꽤 유명하다.



ION 이라는 사람네 집입니다.

자식들은 다들 외국으로 나가살고 두 네외만 살고있었다.



아랫집 아줌마가 도회지에 나갔다가 맥주를 사다주고 서로들 그렇게 살고있네요.



3평정도 되는 작은 거실 한켠에 몇년 산 인지는 모르는 작은 TV 와 수놓은 천으로 꾸며놓았네요.



저 쇼바(삐치카)가 유일한 난방 기구이고 물도 데워 세수도하고 음식도 뎁혀먹고,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다.



오늘 하루종일 죽도록 돌아다니다가 들어왔는데 먹을게 없다,일단 지하실에 보관해둔 사과 3개를 받아왔다...



계란 3개를 저 빼치카에 삶아서 요기를 해야겠다 ,오늘 저녁이다.



내가 오늘밤 잘 방이다 . 잡다한 짐들 넣어두는 안쓰는 작은 방인데 오늘 이곳에서 하루밤 신세를 져야겠다,아니 내일도 여기서 자야겠지... 이 산골에, 그래도 이슬을 피할수 있다는게 감사할 뿐이다. 자다가 너무추워 잠바를 입고 모자까지 꼭 눌러쓰고... 그래도 난 잘 잤다 ㅎㅎㅎ



이곳에 온지 이틀째다, 제대로 못 먹고 하루에 계곡을 약 10km 정도씩 마노찾아 헤메고 다녔더니 체력이 달린다, 허기가진다.
그런데 도저히 비위가약해 이집 주인이주는 음식을 먹을수가없다, 난 잠은 어디서나 잘수있지만 음식은차라리 굶고만다, 이제 컵라면도 마
지막 한개....



저 양반은 잘 먹는다,돼지 껍데기 소금에 절인것과 양 치즈와 빵이다.먹어 보라는데 난 사양할수밖에...



오늘 컵라면이 이토록 좋아보이다니





부카레스트 (수도)에 있는 벼룩 시장이다, 일주일에 토,일요일만 문을 연다, 예전에는 매주 토요일 아침에 와서 그림도사고 오래된것들 구경도 하곤 했는데

근래에는 별로 살만한 물건이 없다,가격도 비싸지고... 모처럼 한국분 처음오는 분 안내도 해줄겸 나섰는데 별로 살만한 물건이 읊네...



루마니아 고 지폐는 다 한장씩 모은지 오래다.그래도 흑 없는 지폐가 있나 살펴봐진다.



공산당 시절의 훈장들 .



그래도 사람들은 북적북적 , 거의 중국 제품들이 판친다.











그놈 인상 드럽네...



"산 마늘", "명이 나물" 로 불리우는 우리나라에 울릉도에만 나왔다는데 요즘 한국에도 많다고들 하지요 이곳은 천지에 짝 ~~

교민들은 이만때쯤 뜯어다가 삶아 냉동시킨후 일년 내내 먹습니다. 된장국도 끓여먹고 김치도 담그고...



저 정도면 일년 양식이 되겠네요... 집사람과 모처럼 바람도 쉴겸해서 수도 근교로 나왔습니다.



참나물도 우~와 ~~ 올해는 예년에비해 철이 조금 이른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몇일간은 나물 비빔밥을 질리도록 먹겠지요,제철에나는 야채를 먹어야 한다며 매일 줄것입니다 난 고기가 좋은데..



붉은 돌산에서 가져온 돌을 그라인더로 자른 형체입니다,한국으로 보낼 샘플.



동내 가로수가 "찌레쉬"라는 체리같은 과일인데 그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절정을 이루었네요.
이제 조금있으면 체리가 넘쳐나겠지요,아주 맛있고 엄청 싸고,온 산천에 널려있습니다.



두건을 두른 아랍 여인에게, 어느나라 대사인가 ?...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 ,옆에 서 계신분은 말레이시아 대사님인데...



임기를 마치신 임 대사님 송별회장 입니다,여느 대사님보다 검소하시고 자상히 교민들과 교감을 갖었던 분이래 역시 송별회장도

검소하게 단출히 준비하셨군요, 루마니아에 살면서 벌써 8~9분의 대사님을 뵈었지만,임대사님 ! 안녕히 가십시오.



이 호텔을 대사님들 송별회장등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매 대사님들에따라 행사의 규모가 많이 다릅니다. 화려하게 잘 차려서 잘 얻어먹고 가면서도 내내 마음이 씁쓸했던적이 있었거든요, 다 국가의 공금,국민의 귀한 세금일텐데...





한국으로 보낸 붉은 돌(Red jasper)을 가공한 형물입니다. 광택이 아주 잘 난내요.



작은 아이 스케치 입니다,음 ~ 이제 제법 잘 하는군 !



남선교회 주관으로 카르파치 산맥의 흑진주라 불리는 부체치 산으로 봄 등산대회를 왔습니다, 수도쪽은 완전 봄인데 이곳은 높은 산간이라 눈이 보이고.... 자 ! 출발전 기도하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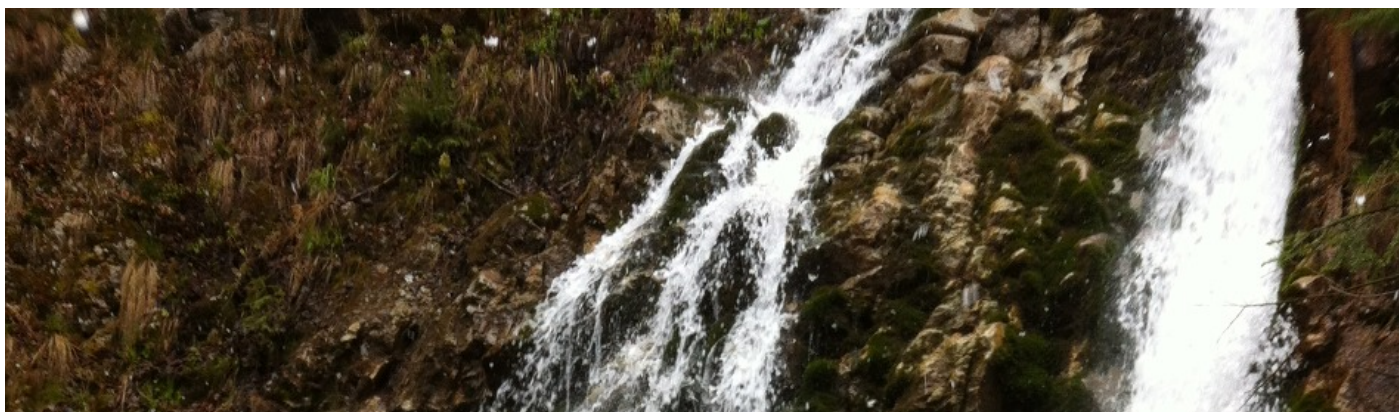
큰 나무들이 겨우내 내린 눈을 못이겨 쓰러진것들이 있습니다.나만 옷을 가볍게 입었지 다들 겨울복장들 했구만 .





이 폭포까지 약 2 km 입니다, 이곳이 우리 목적지 입니다,더 올라가려면 코터 2,200 m 까지 갈수있는데 약 4시간가량 걸립니다.

올해도 인증샷 한컷 !





목사님과도 한장 !



내려오는데 눈이 막 퍼붓기 시작했습니다,금방 길에 눈이 덮이는데 얼른 하산합니다...



산을 내려오니 날씨가 괜찮네요,두대의 차 본넷위에 상을 차렸습니다.각 가정에서 점심을 준비해 왔거든요. 역시 "금강산도
식후 경" 이란 말이 틀림없습니다, 남남 ~~



조권사님이 성게 미역국까지 끓여 오셨다네요,



음. 남~ 남 ~~ 물도 끓여 컵라면도 먹고,닭강정도 뜯고.... 음 교회 모임이라 반주가 없군요 !



저 아이 눈에 "뭔 음식을 저렇게들 서서 허천나게들 먹는다냐 ???"

작은 짬시 아이가 먹고싶은지 쳐다보기에 우리 음식을 나눠주니 잘 먹네요,"너 이리와 사진한장 찍자 !"

음식도 주었건만 또 돈도 달라네요. 티웅 ~#%\$@@@



목사님이 대표로 다들 식사 기도하는데, 맛 ! 한집사는 그냥 먹는다 !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아멘 한인교회 여선교회 . 다들 어디가고 5섯분만 ?



남선교회, 몇분이 못오셨군요.





붉은 꽃잎이 가는 바람에도 하늘거리는데 그 붉은색은 눈길을 잡아 당기는강렬함이 있네요,이름모를 보라
색 들풀과 조화를...



현지인 친구 코스텔네 현장,선별기입니다.한가로운 전경이 편안함을 주네요.



이 선별기 모래 슈트를 수리하고 그 슈트에 사금채취 장치를 해 봤습니다.



4월 중순인데 ... 눈이 내린 루마니아 최대 관광지인 "뵘이아나 브라쇼브" 입니다.



가끔 오는 곳이지만 올때마다 보여지고 느끼는게 "참 아름다운 곳이다".



K14 지역이 내려다 보입니다. 얼른 저곳에 장비를 들여와 작업을 해야할텐데...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수도에있는 종교청본부 건물 입니다.



현지인 친구 집에서 한국 손님들과 부활절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 나라 풍습과 음식들,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다뉴브강을 경계로하는 루마니아 국경을 넘어 불가리아 루세 지역으로 들어서니 천지가 유채꽃으로,노란 물감을 확 부워놓은듯.



불가리아 소피아 도심 외각에있는 호텔인데 가격이 아주 저렴하네요,3명이서 아침포함 약 40 유로.밤 11시
쯤 도착해서 쿨쿨~~



쏘피아 도심 한 복판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 대성당"



"느네들 잘들어 ! 네가 근 30년을 살아온 노하우를 느네 꼬레아인에게 알려주는거야"하면서 불가리아말로
썰라썰라 [쓰키~@%\\$#....](#) 근데 저 한국 양반들 알아는 듣고 있는겨 ? 한 십분후에 제게 저사람 뭐라고 한
겁니까 ?하는데 제가 제 느낌대로 통역...



불가리아 하천과 광산등을 둘러보고 국경을 지나 세르비아 땅으로 막 들어서니 환전소가 쭉 있습니다.일단 연료비등 환전을

하는데 차가운 사람들인데도 친절하네요,길거리 커피도 한잔씩 사먹고 주인이 여자분이라 실실 장난말도 나누고,소통은 손과발.



불가리아에서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로 가는 메인 도로입니다,풍광이 멋집니다.





휴게소에 들어 기름도 넣고 커피한잔 하려는데 옆자리 세르비아인이 열심히 핸드폰을 두대놓고 메시지 전달 ? 오락 ? 카톡 ?



"세르비아 베오그라드"구 시가지 모습인데 그동안 알고있던 이미지와 너무 다른 모습에 어안이 빙빙 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세며 활기에찬 모습들이 경제 수준에비해 너무 다른 모습들이라,꼭 서유럽의 한 복잡한 도시와 같았습니다.



베오그라드 구 시가지에서 내려다본 다뉴브강의 모습.



키가 1.8 미터는 되어 보이는데,아름다운 미모로 관객을 끌어모아... 어째든 연주 소리보다는 다들 그 외
모를 보는듯 . 우리요 ? 우린 연주소리에만 ...



루마니아로 들어와 한 지역을 지나는데 눈에 고사리가 천지에 짝 깔려있어서 사진도찍고 채취도 50 킬로 정도 하고,고비갈기도...



낮으로 베야 할것 같습니다,양때를 몰고 지나가는 목동에게 먹냐고 물어보니 사람은물론 양들도 안먹는다고네요...



뿌리까지 캐서 인증샷 ! 약 50 킬로정도 뜯어와 한인분들과 구루 잘 나눠 먹었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맛납니다.









루마니아도 보궐 선거 ? 아 ! EU 의회 연합 의원 선출한다네요...



조용한 시골 마을길 ,요즘 부쩍 자전거 여행객들이 루마니아를 많이 찾나봅니다,



이런 ... 차가 산으로 올라가네



루마니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있는 도로인 "트란스 알피나" 지역입니다,해발 2450 m 정도로 루마니아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

중의 한곳입니다,스키장도 있고 휴양시설도 잘 갖춰진 곳인데 한국분들은 잘 모르지요...



카르파치 산맥의 흑진주라 불리는 부체치산을 향하여...



루마니아 옛 독재자 차우세스쿠가 지은 인민궁전,오랜만에 와보내요...한국분이 오셨기에 구경시켜 드리고
나도 한장 !



루마니아도 관광에 눈을 뜨기 시작하네요,수도인 부카레스티 옛 시가지인데 깨끗히 정돈하고 제법 유럽풍을 꾸며뵙니다...







루마니아에서도 이정도의 회를 맛보실수 있습니다,굴 튀김도 맛있고요. 몇년간 루마니아에서 함께 사시던 분이 한국으로 귀임하신다기에 송별기념으로 한잔



오 ~우 ,30년산 두병을 준비했네요,옛날것과 요즘 것인데 각각 맛이 다르더군요...



자, 자 , 우리 비록 외롭게 외국에 살지만 죽기전에 맛있는 것 실컷 먹고 삽시다 ㅎㅎㅎ



디저트로 나온 채리가 엄청 크고 참 달고요.



1 kg 에 약 3유로 정도 한다네요...











루마니아 흑해의 바닷가...



시골 들판을 가다가 이쁜꽃이 있기에 찍었는데 ,무슨 꽃인지 아시는 분 ?



오늘은 이곳에서 하루 묵어야겠다 . 요즘은 루마니아 지방 어딜가나 숙소들이 다 깨끗하다,2인1실 아침포함 30유로.



친절한 빠텐더에 푹 빠져 코스텔과함께 맥주 엄청 먹었습니다.

루마니아에 첫눈도 오고, 어느덧 가을인가 싶었는데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근 한달가량 우중충한 날씨가 연속이네요.

분주한 일상으로 블로그 관리를 잘 못했는데 지난 몇달간의 모습들을 올려봅니다.



고양이 침대...



이곳 사람들 피망을 저렇게 구워서 식초에 절인다음 피클처럼 먹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태운것 같은데 저 친구 왈"이건 내가 전문이다"



코스텔네 가족하고 1박 2 일 '트란스 알피나'로 여행가던 중 들른 곳인데 "자라는 돌"이라는 "트로반트" 라는 돌이 있는 지역...



토요일날 잠깐 나왔는데 다들 너무도 즐거웠습니다.



호텔 옆 공터에서 통나무 의자도 만들고 장작 주워다가 숯불 돼지, 닭고기도 구워먹고 밤 늦게까지 킁킁,
갈갈...즐거웠습니다.



트란스 알피나 뒷편 으로 내려가면 당나귀들을 방목 하는데 지나는 사람들이 먹이를 줘 버릇해서 인지 차
나 사람들 가까이
막 몰려옵니다.





우리동내 친구인 에우젠씨하고 장비 문제로 흑해 바닷가를 갔습니다, 그곳사는 친구가 바다 음식을 내왔네요.



머드팩을 하고있는 완벽한 몸매의 여신 ! 왜 하필 우리 식사하는 바로 옆에서 ...신경쓰이게시리 ㅋㅋㅋ



어째 패닝하는 자세가 영 안나오네요,초보티가 나는구만 !



자연산 복분자가 얼마나 많은지 점심 대용으로 배를 불리고 저녁에 숙소에서 술안주용으로 한보따리 따습니다.



코스텔네 현장 골재 파먹은 호수에 저런 잉어,붕어등 엄청 많다고해도 사람들이 잘 안믿데요...용접사인
두두씨가 큰 놈 한마리

잡았네요.몇일전 코스민이란 친구는 저 호수에서 저만한 고기들 6마리나 잡았는데...



이것이 루마니아 전통 술인 "꾸이커"를 만들고 있는 기구와 모습들 입니다.



제일 좋은 쭈이커는 자두로 만든 술인데 여기 코스텔네 현장은 자두는없고 사과로 쭈이커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스키나 소주보다는 훨 좋은것 같습니다,도수는 약 40 도 정도로 깔끔합니다 ㅎㅎ



한국에서 준설선이 도착 했습니다,저 컨테이너안에 있는것 기계들 조립 하려면 약 한달정도 걸릴겁니다.



다 끄집어 내니 잡다한 부산물이 많네요...



옛 폐광에서 버려둔 사철 슬러지가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저런 산이 서너개 있는데 약 7000 만톤
정도 있대네요,
저 일리에란 친구가 하두 졸라서 성분 분석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금이 있기는 한데 그 양도 적고 다른 광물과 혼합된 상태라 따로 추출하려면 비용이 만만찮을텐데, 티탄은 많은편이고...



이 선별기는 내가 약 7 년전에 크라이호바 라는 지역의 양꾸라는 골재장 사장에게 판매한 기계인데 그동안 주인이 몇번 바뀌고 이곳까지 와서 내게 구입하라고 의뢰가 왔네요...음 ! 아직 쓸만하겠는데...

어느덧 2015 년이다.

내가 루마니아에 들어와 산것도 벌써 19년째,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난다.

내 블로그의 글도 제법 상여가고 ,내가 걸어온 발자국이 제법 아물거린다.

조금더 세월이 흐른뒤에 내 아이들과 나의 지인들이 나의 루마니아 생활을 이 지면들을통해 볼것을 회상하며 오늘도 또 한 편의 이야기를 엮어간다.



지난 해 12 월 24일 아는 분과 돌이서 하르기타지방 게오르게니에 2박3일정도로, 산장 주위에 있는 스키장 인데 텅텅 비었다...



교회에서 겨울 수련회를 간 모에추에 지역의 겨울 풍경.



우리가 2년째 겨울 수련회 장소로 묵었던 펜션.



두명의 우리식구 .



겨울 수련회 참석 인원이 점점 줄고있네, 겨울에 고국 방문 관계로...



우리 동네인데 눈이 엄청 내리네요,이런 상태라면 한 1 미터정도 오겠지요...



설경이 넘 아름다운 곳입니다.수도에있는 동물원 앞 도로.



우리 현장도 조용합니다, 장비들이 추워보이네 ㅋㅋ





그 큰 호수가 완전 얼어 붙었네요.



코스텔 ,에우젠과 사진한장 찍자...



우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 한 몇일 점심은 이놈들로 먹겠지...



겨울이라 현장에서 이렇게 점심을 때웁니다.



루마니아에서 함께 살고있는 사업자분들, 이게 다입니다.



오늘은 루마니아 전교민 잔치날,한 아이의 돌찬치입니다,전 교민이 다 함께 @!#ㄱ\$!



놀랬다 ! 택시를 탔는데 노트북을 차에 설치해두고 네비로도 사용하고 시간 날때 인터넷도 한단다...



루마니아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 4강국가라 합니다. 전 국민의 약 70 % 가 인터넷을 사용중이라네요...



카르프 매장에 아시아 전문 상품 전시관을 화려하게 꾸며놓았습니다, 이곳도 아시아 식품이 뜨는 중 !



모처럼 현장으로 올라가는 길에 출란으로 점심을 ...



수도보다 많이 북쪽인데 날씨가 좋네요,눈은 보이지도 않고요.



후네도아라 문화회관 앞에서...



오첼 로슈라는 지역에서 옥타비안이란 업자를 만나고 오다가 개울가에서 잠깐 한바가지 돌려봅니다...



약 1 kg 패닝해보니 작은 알갱이 몇톨씩 보이네요,이하천 하류가 K18 지역이거든요 ㅎㅎㅎ





가넷이 많이 보이길래 몇톨 주워모아봅니다...

루마니아 이야기2

블로그 루마니아 이야기 <http://blog.daum.net/aceromania>

저자 kopower

발행일 2015.02.19 16:51:35

 블로그